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과학부, 환경부, NGO 담당기자

발 신 유네스코한국위원회(과학팀 담당: 김은영 755-1105(350) heidi@unesco.or.kr)
 참여연대(시민과학센터 담당 : 한재각 : 723-4255 hanck@pspd.org)

제 목 합의회의의 국내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보도 안내

날 짜 2000. 3. 15. (총 4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시민참여 모델: 합의회의의 국내 정착을 위한 워크숍 개최

3월 24~25일, 서울대 호암생활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공동주최

1. 유네스코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 국민대 교수)는 공동으로 3월 24일(금)~25일(토)에 서울대 호암생활관에서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 합의회의의 국내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개최한 합의회의는 유럽에서 시민참여의 유력한 모델로 채택되어 198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왔다. 합의회의는 유전자조작 식품, 전자주민카드, 도시 교통체계 등 과학기술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환경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참여민주주의 제도의 하나이다.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참여민주주의 제도를 적극 소개하고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98년과 1999년에 '유전자조작 식품'과 '생명복제기술'을 주제로 하여 합의회의를 개최하여, 정부·국회, 언론,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김환석 대표가 두차례 합의회의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였다.
3. 이번 워크숍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두차례 개최한 합의회의의 성과를 국내 관련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이 행사를 통해서 합의회의를 비롯한 다양한 시민참여 모델을 국내에 소개하고 이전에 열렸던 한국 합의회의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또한 국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문화재단 등의 관련자, 시민참여에 관한 연구자·학계 인사, 언론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이 참여하여 시민

참여 모델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집중토의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를 모아 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자세한 워크숍 내용은 별첨 참조)

4. 특히 이번 워크숍은 합의회의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개최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이를 적극 지원하고 참여한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의 실무진이 준비와 진행을 맡아 합의회의의 구체적인 진행 경험을 참여자와 나눔으로써, 합의회의를 각 기관과 단체가 도입·적용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끝.

별첨 워크숍 초청장 및 프로그램 안내문 1부.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합의회의 국내 정착을 위한 워크숍

- 주최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후원 : 과학기술부,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과학기자클럽, 과학문화재단, 시민운동지원기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시민의 신문(예정)
- 주제 : 합의회의 국내 정착 도모 및 과학기술분야 시민참여방안 모색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수련룸)
- 일시 : 2000. 3. 24(금)~25(토), 1박 2일
- 참가인원 : 25명 안팎

문의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김은영 02-755-1105(350)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재각 02-723-4255

3월 24일

개회식 10:00~11:00

- 인사말
권태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 특별강연 장희익(서울대 물리학과)
주제 : 모든 이를 위한 과학
- 워크숍 프로그램 소개
- 참석자 소개
- 사진촬영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11:00~12:30

- 과학기술분야 시민참여에 대하여
(참가자와 함께)
- 다양한 시민참여 방안 소개
이영희 (가톨릭대 사회학과)
- 합의회의 소개 및 국내 도입의 필요성
김영삼 (부산 동의대 행정학과)

합의회의를 통해 본 시민참여 13:30~15:00

- 합의회의를 진행하면서 (슬라이드 상영)
한재각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 시민패널이 본 합의회의

- 심순영 (환경복지군포시민기구 前공동대표)
- 전문가패널이 본 합의회의
손명세 (연세대 의과대학)
- 심층관찰자의 합의회의의 평가
김두환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토론 15:20~16:50

- 조현석 (서울산업대 행정학과)
- 조향숙 (과학문화재단)
- 조명래 (단국대 지역개발학과)
- 권기창 (국회사무처 예산정책3과)
- 김훈기 (과학동아)
- 전체 토론

그룹별 워크숍

- 모의 시민참여방안 설계작업
및 행동과제 도출 17:00 ~

3월 25일

- 기획과제작업 발표 및 토론 9:30~11:00
- 시민참여 방안을 위한 논의 11:00~12:00
- 폐회식 12:00~12:20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합의회의 국내 정착을 위한 워크숍

초대합니다

바깥을 내다보면 시민참여의 열기가 대단해지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분야에서 시민들이 활발한 의견을 내놓아 정책에 반영되고 있으나 과학기술 분야는 그 참여가 극히 미비한 상황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20세기에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해 왔으며 그 추세는 21세기에도 계속되리라고 예상됩니다. 흔히 과학기술 분야는 어렵고 전문가들의 영역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은 실험실 안의 일만은 아니며, 원자폭탄이나 최근의 생명복제기술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 전체 및 개인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단계의 토론과정에 일반시민이 참여하여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시민의 정책참여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합의회의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의회 산하의 기술영향평가국에서 주최하였고,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에서 열렸던 합의회의는 언론의 광범위한 호응을 받으며 개최되었으며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이 상호의사소통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과학대중화를 이루어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간의 의사소통의 장으로도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발전된 방법론을 도입하여 98년과 99년 각각 '유전자조작식품'과 '생명복제기술'에 관한 합의회의를 개최하여 이 분야에 사회적 관심을 확대시키고 또한 합의회의 결과물인 시민패널 보고서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수단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두 번 개최된 합의회의가 국내에 확산되기를 바라면서, 국내 정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정책 결정자와 연구원, 학자, 기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모시고 '과학기술과 시민참여: 합의회의 국내 정착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21세기의 과학의 역할에 대해 상기하면서, 합의회의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국내 정착방안과 과학기술 정책 시민참여에 대해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3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드림